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68건 발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68건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55건(81%)이 보행 중에 벌어진 것이다.

시간대는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모두 23건(34%)이었다.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 13건(19%), 3·4·5·8·9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가장 많아

월별은 6월, 사망은 취학전·저학년 최다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특별 점검

월에 각각 7건(10%) 순으로 집계됐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저학년 5명(1학년 1명·2학년 3명·3학년 1명), 고학년 1명(5학년)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스쿨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한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555개소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구역 36개

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으로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시

경찰, '치매노인 실종 감지기' 4000대 보급

경찰청이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상습실종 치매노인 4000명에게 배회 감지기를 무상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회 감지기란 치매환자가 집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알려주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북지용구다.

치매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에서 보유 중인 실종이력을 활용해 대상자 4000명을 선정한다.

경찰은 그간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실종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지난해 실종 치매노인 발견율은 99.9%에 달했다. 다만 2014년 8207건이었던 치매노인 실종건은 2017년 1만308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에도 배회 감지기를 치매노인 6000명에게 무료로 보급한 바 있다. 보급 대상자 중 25명이 실종신고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전원 발견했다. 이들은 평균 71분만에 발견돼 배회 감지기가 없는 실종 치매노인 발견 소요시간(약 12시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사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뒤 지난해 제품보다 크기를 축소하고 배터리 유지시간을 늘렸다.

경찰청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전국 2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소방청·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도 합동수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뉴스시



해운대에 몰린 피서객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부산에는 지난 11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가 12일 경보로 대체돼 나흘 동안 유지되고 있다.

태풍·장마에 농작물 7678ha 피해...남산 면적 22.6배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장마 영향으로 농작물 7678여 ha(헥타르·1ha=1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지 6.5ha가 유실되고 가축 5만6000여 마리도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두 차례(6월 26~28일, 6월 30일~7월 4일) 호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국 농작물 7678.4ha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339ha)의 22.6배에 해당한다.

전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체 침수 피해 농경지의 절반 가량이 3368.0ha가 물에 잠겼다. 뒤이어 전남 2725.0ha, 충남 1398.0ha, 경북 124.9ha, 경북 37.4ha, 충북 13.3ha, 경기 8.6ha, 강원 3.0ha, 부산 0.2ha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 4911.5ha, 전작 922.0ha, 채소 384.2ha, 특작 25.0ha, 과수 3.6ha가 침수 피해를 봤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6.5ha로 집계됐다. 충남(5.0ha), 전북(0.8ha), 경북(0.4ha), 강원(0.3ha)에서 피해가 컸다.

전북에서는 닭 4만6000마리와 오리 1만 마리가 폐사했고, 충남에선 양봉 80군이 물에 잠겼다.

보성의 모원저수지 제방사면 10m도 파손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비는 농약대(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

용), 생계비로 나뉜다.

농약대는 채소류의 경우 ha당 30만원에서 5.6배 인상된 168만원, 과수류는 ha당 63만원에서 2.7배 오른 175만원을, 인삼은 ha당 23만원에서 14배 오른 323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대파대는 열매류(ha당 297만~410만원)의 경우 1.4배, 과채류(ha당 392만~619만원)는 1.6배 지난해보다 더 준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준다.

희망 농가에 한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뉴스시

파키스탄, 연쇄테러로 150여명 사망

파키스탄이 15일 '국가추모일'을 맞아 최근 잇단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린다.

15일 현지 언론 더본(The Dawn) 보도에 따르면, 하루 전 정부는 지난 10일 페샤와르와 13일 마스툽바누 등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로 150여명이 희생되자 이날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국기가 반기로 게양됐다.

지난 13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 주도 퀘타 인근 마스툽바누에서 오는 2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유세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 128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했다. 카이바 파르투크와 주에서도 선거 집회를 노린 자폭공격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자폭테러로 유력 정치가 하룬 아흐메드 빌투르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군은 총선을 맞아 각종 폭력과 테러를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을 받고 35만명의 병력을 전국 투표소에 파견하기로 했다.

초대형 빙산, 그린란드에 근접...주민 대피

초대형 빙산이 그린란드 서부 해안 인근으로 떠밀려 내려와 해안 마을 주민 169명이 대피했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및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빙산은 높이 100m에 이르는 초대형 빙산으로, 당국은 빙산이 조개 지면서 쓰나미(해일)가 발생해 해안 마을 가족들을 집어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그린란드 경찰은 "이 빙산이 조개지면 해안 마을에 홍수가 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의 한 관계자는 "해안에 빙산이 출몰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이렇게 큰 빙산은 처음"이라며 "현재 해안 출입은 통제됐으며, 주민들은 전원 고지대로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서 2500년전 '미라 제작 작업장' 발견

이집트에서 약 2500년 전 고대 이집트 미라를 제작하던 작업장이 발견됐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및 이집트 현지 영문매체인 아흐람 온라인에 의하면, 이 작업장은 이집트 수소 카이로 남부 사카라 네크로폴리스(고대 도시 가까이 있는 묘지)의 지하 30m부근에서 최근 발견됐다.

이집트와 독일 공동 연구팀이 발견한 이 작업장은 진흙 벽돌과 석회암으로 구성된 사각형 건물 형태로, 내부에서는 다수의 미라와 석관, 방부처리 시설 및 도자기 등이 발견됐다. 이 도자기들은 미라 제작에 사용된 물질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레드 엘아나니 이집트 고대유물부 장관은 14일 사카라 네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와 독일 튀빙겐 대학교 연구팀이 2500여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 제작 작업장을 발견했으며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작업장에서 "35구의 미이라와 4개의 봉인된 석관이 발견됐다"며 "조만간 석관을 열고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 이번엔 '찜통더위'...5명 사망

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서일본 지역의 폭우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일본열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14일 1500여명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5명이 사망했다.

NHK방송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해 폭우 피해지인 서일본과 동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기후(岐阜)현 다지미(多治見)시가 38.7도로 가장 높았고, 교토(京都)시가 38.5도, 미에(三重)현 마쓰야카(松阪)시가 38.2도까지 올라가는 등 올 들어 처음으로 38도를 넘어섰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533명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도야마(富山), 시즈오카, 돗토리(鳥取), 히로시마(広島), 오이타(大分) 각 현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뉴스시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검진

[고객센터 1577-1000]